

야구

4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한화 김태균

역대 최다안타 4위 김태균 “용택이 형 기록 넘고 싶다”

한화 이글스 김태균(37)이 역대 개인통산 최다안타 4위를 넘어 1위를 넘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2500안타 고지까지는 밟고 싶은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김태균은 29일 대전 SK 와이번스전을 앞두고 LG 트윈스 박용택(40)이 경신해가고 있는 최다안타 1위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용택이 형 기록을 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균은 하루 전 잠실 두산 베어스전 1회초 조쉬 린드블럼에게서 중월 인정 2루타를 빼앗아 개인통산 2160안타를 찍었다. 역대 4위이자, 우타자로는 1위 기록이다. 이날 SK전에선 3타수 무안타.

2174안타를 치고 올 시즌 초 은퇴한 3위 박한이(전 삼성 라이온즈)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2위 양준혁(은퇴·2318안타)을 언제 넘어설지가 관심사다. 김태균의 시선은 그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박용택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LG와 개인 3번째 프리 에이전트(FA) 계약을 한 박용택은 29일 잠실 두산전에서도 1개를 추가해 2437안타를 뽑고 있다. 내년 시즌을 마치고 은퇴할 예정이다. 전인미답의 2500안타 고지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김태균은 역대 4위 기록 작성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해왔다는 훈장과 같은 느낌”이라고 자랑했다. 이어 “(2001년 데뷔 이후 올해까지) 17년간(일본 지바롯데 마린스 소속 2010·2011년 제외) 많은 감독님들과 타격코치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160번째 안타 상황에 대해선 “린드블럼의 볼이 워낙 좋아 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첫 타석에서 안타가 나왔다”고 설명한 뒤 “공(2160안타 기념구)은 전달받았다. (마운드에서) 담장을 넘어가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구단 직원이) 챙겨줬다”며 웃었다. 올 시즌 부진했던 팀 성적과 관련해선 “팀이 막판에 이겨서 다행”이라면서도 “(스스로는) 작년 (마무리)캠프부터 준비를 많이 했고, 작년 성적도 좋아 선수들도 기대했는데 아쉽다. ‘역시 야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았다”고 밝혔다.

김태균은 올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다시 얻는다. 취재진과 인터뷰 도중 구단 직원 이 곁을 지나가자 “빠는 (한화에) 묻었다”는 말을 꺼냈다. 한화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고픈 의지에도 변함이 없는 김태균이다.

대전 |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영원한 LG맨’ 이동현 그라운드 떠난 날

“19년간 혼신투…사랑받은 선수로 기억되길”

“단 한번도 허투루 공을 던진 적 없다”
아버지 시구·팬들 이동현 이름 연호
LG, 1만1642명 추가팬 100만 관중

수술대에 오르기만을 세 차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LG 트윈스 투수 이동현(36)의 투지는 선수 생활을 마치는 순간까지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의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팬들로 한가득 채워진 잠실 구장은 이동현이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헌신한 19년의 가치를 증명했다.
‘영원한 LG맨’으로 선수 인생을 끝맺음했다. 29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 7회 구원 등판한 이동현은 박세혁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워 은퇴를 알리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장식했다. “19년간 LG에 몸담으며 단 한 번도 허투루 공을 던진 적이 없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투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0.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이동현은 하늘 위로 오른 팔을 번쩍 들어올려 기쁨을 만끽했다.
곧이어 박용택이 직접 마운드에 올라 이동현을 끌어안고 작별의 인사를 전했다.



LG 이동현(왼쪽)이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전에 앞서 아버지 이형두 씨와 포옹을 하고 있다. 자신의 은퇴경기로 진행된 이날 게임에서 시포를 맡았던 이동현은 시구자로 나선 아버지의 공을 직접 받은 뒤 큰 절을 올려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다. 이동현은 동료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덕아웃으로 향했고 홈 팬들은 이동현의 이름을 연호했다. 팔꿈치 인대 수술을



‘천재의 강속구를 받아라!’ KT 강백호가 29일 수원 삼성전에 팀 4번째 투수로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강백호는 최고구속 시속 149km를 기록하며 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투타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진제공 | KT 위즈

삼성전 14구 던져 1이닝 무실점 호투 투수·포수·1루수·외야 소화 ‘역대 2호’

천재는 천재였다. 강백호(20·KT 위즈)가 이번에는 마운드에서 팬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입단한지 불과 2년 만에 투수와 포수, 1루수, 외야 세 포지션을 모두 출장하는 진기록도 썼다.

KT는 29일 수원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7·0으로 승리했다. 2회 황재균의 선제 솔로포로 앞서나갔고, 6회에는 멜로라스 주니어의 투런포 등을 묶어 대거 4득점했다. KT는

최종전에서 승리하며 시즌 71승2무71패를 기록. 창단 첫 5할 승률로 시즌을 마치게 됐다. 아울러 역대 포스트시즌(PS) 탈락 팀 가운데 최다승인 71승 기록도 남겼다.

PS 탈락이 이미 확정된 상황의 경기였지만 모두의 이목이 쏠렸다. 이강철 KT 감독이 최종전을 맞아 팬 서비스 차원으로 강백호의 등판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강백호는 서울고 시절 투수와 포수를 겸하며 이름을 알렸다. 비록 프로 입단 후에는 마운드에서 지 못했지만, 지난해 올스타전에서는 이벤트싱 등판을 한 바 있다. 당시 최고구속 150km를 자랑하며 여전한 어깨를 과시했

다. 올 시즌에 앞서 부임한 이강철 감독도 강백호의 투수 활용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스프링캠프 불펜 피칭 한 번으로 무산됐다.

이 감독은 매번 KT의 흥행 카드를 고민했다. PS 탈락이 확정됐지만 일찌감치 강백호의 투수 기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팬들의 발걸음을 모았다. 그리고 약속대로 29일 강백호를 마운드에 올렸다. 1루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은 어느 투수보다 그를 반겼다.

6회까지 우익수를 맡다 7회 초 마운드에 오른 강백호는 초구부터 149km를 기록하며 탄성을 자아냈다. 첫 타자 최영진을 유

격수 심우준의 호수비 덕에 잡아냈지만, 후속 김도환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박해민을 유격수 뜬공으로 잡아낸 뒤 박승민 투수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왔다. 강백호는 계속 던지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박 코치는 이를 존중했다. 강백호는 후속 김성훈까지 땅볼 처리하며 첫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4구 모두 속구였으며 최고구속은 149km, KBO리그 역사상 투수와 포수, 1루수, 외야 세 포지션을 모두 소화한 건 계형철(은퇴)이 유일했다. 강백호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쓰게 됐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롯데 개혁의 필요조건…‘약자’ 탬파베이 생존법에 답이 있다

정재우의 오버타임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는 올해 연봉 총액이 6500만 달러(약 78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스몰마켓 구단의 대명사다. 집계처마다 조금씩 수치가 다를 뿐 30개 구단 중 연봉 총액이 가장 낮은 구단임은 분명하다. 2억4000만 달러(약 2880억 원)로 1위인 보스턴 레드삭스에 비하면 대략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탬파베이는 올해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로 6년 만에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는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보스턴을 제치고 뉴욕 양키스에 이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90승72패로 지구 3위에 올랐고,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선 3위였다.

탬파베이는 포스트시즌 문턱에서 좌절한 지난해 ‘오프너’ 또는 ‘불펜데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메이저리그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최소 5이닝은 책임지는 선발투수가 아니라 1·2이닝을 소화하는 불펜투수를 첫 번째 투수로 내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그 뒤로 진짜 선발투수를 등판시키거나 다른 불펜투수들을 잇달아 투입해 경기를 끝내는 방식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선발투수의 몸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스몰마켓 구단의 고심이 묻어난다.

새로운 시도에는 늘 적잖은 진통이 수반되듯, 야구의 고전적 개념을 훼손하는 탬파베이의 행위는 적잖은 저항에 직면했다. 당장 몸값 하락을 우려하는 일부 거물투수들, 경기시간 단축에 사활을 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들에게 탬파베이는 야구의 전통을 파괴하

는 이단아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프너는 1년 만에 교육지책이 아닌 전략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빅마켓 구단들마저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당장 LA 다저스만 해도 포스트시즌 최적의 마운드 조합을 고심하며 9월 한 달간 꾸준히 오프너 전략을 실험했다. 강자의 논리 또는 생존방식을 뒤엎기 힘든(그래봐야 한계가 있는) 약자의 고민이 담긴 발상이 어느덧 메이저리그 전체의 환경을 받기에 이르렀다.

요즘 KBO리그에선 롯데 자이언츠의 변신 시도가 화제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출신의 30대 단장을 선임하고, 외국인 후보자로 국한하긴 했지만 이례적으로 감독 선임 절차를 공개하는가 하면 새로운 작책(또는 작군)을 신설해 인적개편에도 벌써 착수한 분위기다. 김종인 대표이사, 성민규 신임 단장이 주도하는 롯데 개혁의 프

로젝트가 시즌을 마치면 과연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KBO리그 원년 구단의 이 같은 파격 행보는 기대감과 더불어 냉소적 반응을 함께 낳고 있다. 지난 2년간 해마다 감독을 경질할 정도로 단기처방에 급급하거나 조금증으로 일관한 터라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 급격하고 과격한 방식의 변화가 향후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염려도 있다.

그러나 원년 구단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롯데가 지금껏 보여준 비전 없는 구단 운영과 축적되지 않은 전력을 떠올리면 지금의 변신 노력을 성급히 폄하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롯데는 강자가 아닌 약자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면, 전방위적인 쇄신을 택한 그 용기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줄 만하다. 어쩌면 지금 롯데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티끌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던 과거의 자화상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jace@donga.com